

해외봉사로 청소년 포교에 앞장

진해 대광사, 해외봉사 활동 발표회 가져



진해 대광사는 해외 봉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연말부터 1월 7일까지 실시한 태국 봉사활동 사진

진해 대광사(주지 탄경 스님)가 해외봉사로 청소년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대광사는 1월 27일 대광사 교육관에서 청소년들의 해외봉사활동 발표회를 가졌다.

청소년에게 봉사 의지 계기 심어줘 다양한 경험 제공 포교 범위 확대

2011년 4월부터 대광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어 온 학생들이다 그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봉사를 다녀온 홍성현(지리산고 입학예정)양은 “난민촌이라 많이 부족하거나 어렵게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한편으론 더 부러웠다”며 “하지만 버마의 정치적 탄압으로 나라에서 쫓겨나 태국에서 생활하는 난민촌 학생들을 보면서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올해 중학교 진학을 앞 둔 백창명(진해

중 입학예정)군은 “장래 희망인 건축가가 되어서 다시 이곳에 와서 좋은 집과 건물들을 지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희망의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이자 인솔교사인 남미영 씨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부쩍 성장한 아이들을 곁에서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뿌듯하다”고 전했다.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탄경 스님은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 공동체가 공존하는 국경도시인 매곡 지역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 간의 교류, 평화와 국제 연대에 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고 해외봉사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참가한 학생들의 변화한 눈빛이 가장 큰 수확이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찰의 청소년들과 연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감회를 전했다.

진해 대광사는 2011년 4월부터 청소년 포교의 일환으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했다.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술, 탁견, 생태탐방, 해외봉사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만 14~25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가치있는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계획하며 매주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백경수 부산지사장

“이웃과 사회 위한 대자비 실천”

중앙신도회·종교인평화회의 신년하례 법회

대구지역에서 중앙신도회와 대구종교인평화회의의 신년 하례법회가 각각 열렸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 법회가 1월 26일 동화사 통일대불에서 봉행됐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중정 진제 스님의 법어, 동화사 신도회장의 신년대중발원문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 치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격려사, 류병선 제9구 신도회장의 환영사,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인사로 진행됐다.

이날 중앙신도회 신년하례회 동참대중 일동은 ‘불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대자비를 실천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어 불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구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신년 하례회를 갖고 종교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구종교인평화회의는 1월29일 만남의 교회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비롯한 6개 종교단체 대표



중앙신도회는 1월 26일 대구 동화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자들이 참석해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교대표로 참석한 동화사 총무국장 원광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 종교의 가르침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종교간 평화 가 멀지 않다”고 전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청암사 승가대 졸업식

김경청암사 승가대학·승가대학원 졸업식이 1월 27일 청암사 자양전에서 개최됐다.



청암사 졸업식

청암사는 승가대 졸업생 13명과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6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또한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생 1명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은 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맞이하는 순백한 마음가짐으로 전법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오등선원 안심대법회 마련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참신 안심대법회를 마련했다. 오등선원은 조실 대원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월 29일~31일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법석을 열었다. 오등선원은 중국의 고봉 대선사가 집필한 ‘선요’를 중심으로 3일간 무료로 법석을 펼쳤다.



오등선원 법회 장면

대원 스님은 용성 스님, 고암 스님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효봉, 경봉, 향곡, 성철, 월산 스님 등 한국 선불교를 대표했던 선지식을 모시기도 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의 요소 ‘디자인’ 고려해야

오래전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가곤 했던 일본사찰에는 콜라나 녹차, 생수 등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있었는데, 이 물건이 그때는 꽤나 신기해보였다.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다가 자동판매기에서 시원한 녹차 하나를 꺼내 먹는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꽤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나라 사찰에도 이러한 자동판매기가 도입되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일본처럼 일상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음료가 필요한 불자들에게는 이 자동판매기가 여간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자동판매기는 전기도 작동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작동을 멈추는 것이 문제였다. 일본사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재나 철제상자를 만들어 자동판매기를 넣어두거나 지붕을 씌운 쉼터를 만들어 기계를 보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호상자나 쉼터가 일본사찰의 전통적인 경관성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는 아예 보호상자나 쉼터를 설치하지 않아 고장이 나거나 청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러한 장치를 했다하더라도 디자인이 조잡하여 우리의 사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문제가 된다.

사찰은 특별한 장소성을 가진 곳이다.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성을 오롯이 간직한 사찰환경 속에 도입되는 새로운 요소라면 오랜 세월 사찰에 도입된 다양한 요소들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요소는 한국사찰경관의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경관요소를 도입할 때 기존의 경관요소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생활불교의 성격을 수용하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찰에 도입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종교적 상징성을 전달해야 하고, 그것이 한국성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도입되는 요소들은 종교적 상징성과 한국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사찰 주지스님
종단 스님, 불자님
누구나 동참
가능합니다.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 (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금리거리

대불선원

만리장성

문수원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 (3/29, 금)	북경, 성도
2일 (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 (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 (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 (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 (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의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1867-8009
- 접수 마감 : 2월 28일까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문의 및 접수 : 0551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1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